
김문수 후보, 윤석열의 내란 아바타를 넘어 극우 댓글조작 아바타였습니다

국가의 미래이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을 이 나라의 기둥으로 성장시키고자 년1조 8천억원에 달하는 혈세가 오히려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시키는데 악용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리박스쿨 사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일전, 저희 신속대응단에서 리박스쿨의 댓글부대를 활용한 여론조작 선거부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자 국민의 힘 선대위 공식입장은 ‘음습한 공작의 냄새’를 운운하며 저희가 제시한 증거자료에 대한 반박자료를 제시하기 보다는 무조건 “아니다. 모른다” 라는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기억속에 아직도 생생한 2012년 12월 국정원직원 댓글조작 공작, 2014년 12월 대통령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이 불어졌을 때 프레임 전환으로 이를 감추려는 공작을 펼치다가 급기야 헌정사 최초로 자당 출신의 현직대통령 탄핵 후 20년 징역형 확정이라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주인공들이 누구인지 벌써 잊으셨습니까? 이 자리에 그 사건의 생생한 증인도 한분 있습니다.

음습한 공작의 냄새도 모자라 국민 모두를 지난 겨울 섬뜩하게 만들었던 12.3 내란사건 작전의 주인공은 또 누구였고, 법관이 법률에 의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동원한 무력으로 막으면서 한겨울 추운 아스팔트에서 국민들을 ‘키세스 시위대’로 만든 장본인이 누구라는 사실마저도 잊으신 것입니까?

김문수 후보의 반응은 또 어떠 했습니까? 처음에는 리박스쿨과 손효숙 대표를 모른다면 홍길동식 답변을 했다가 동영상 자료가 공개되자 리박스쿨과 손효숙을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한 대답은 얼렁뚱땅 넘어가면서 “내가 어떻게 댓글 공작 했다는 것을 아느냐?” 라고 변명하였습니다.

오늘 브리핑 전 보여드린 동영상속 리박스쿨 손효숙씨의 자백과 사진은 무엇입니까? 손효숙씨와 자주 교류했다는 사실은 차고 넘치는데 손효숙씨가 김문수후보를 모함이라도 했다고 변명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사진속에 나오는 지난 27일

‘대선후보 TV 토론’이 생중계되던 시점에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164명의 자손군 단독방에서 김문수 후보를 칭찬하고 이재명후보를 비판하는 댓글을 쓰라고 지령을 내리면서 구체적 댓글의 예시까지 자세히 가르쳐 준 것은 누구를 위한 댓글조작 행동이었습니까?

리박스쿨의 자라나는 새싹들에 대한 왜곡된 역사관 주입교육과 자손군을 이용한 댓글작업을 통한 여론조작 선거부정은 리박스쿨과 손효숙씨의 단독 일탈이 아닌 것이라는 증거와 제보는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 원내대표까지 동원되었고, 학부모가 아닌 자손군을 학부모로 위장시켜 국회라는 마당까지 내주면서 이재명 후보의 교육정책을 고의적으로 비방한 ‘바른교육을 위하는 학부모시민연대’ 행사, 윤석열 정권에서 이주호 교육장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으로 리박스쿨 대표 손효숙 임명, 리박스쿨이 깊이 관여된 늘봄교육정책 예산확대, 국립대학교인 서울교대와 리박스쿨의 MOU체결 특혜, 급기야 김문수 후보까지도 돌봄예산 확대라는 것을 자신의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이 모든 것이 댓글조작부대 자손군을 운영하여 선거부정을 도모한 리박스쿨과 우연의 일치라는 말입니까?

만일 국립대학교인 서울교대가 리박스쿨과 체결한 MOU가 문제가 있는 특혜가 아니라면 서울교대는 우리 신속대응단이 이 사실을 밝힌 휴일 왜 급하게 MOU를 취소하고 리박스쿨에서 제공한 늘봄학교 프로그램까지 폐지했는지 이는 도둑이 경찰에 들키자 장물을 두고 도망간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리박스쿨에서 극우적 찬양을 한 합창단은 용산대통령실 방문행사까지 하였고 이 합창단의 대통령실 방문을 관장하는 수석실의 한 행정관은 “MBC의 바이든 날리면 사건 때 극우 유튜버와 ‘새미준’이라는 단체를 우리가 관리하였다”는 말을 했다는 것은 대통령실이 리박스쿨과 같은 역사를 왜곡하고 댓글을 조작하는 극우성격의 단체 운영에 깊이 관여되었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저희들이 알아 본 사실에는 이러한 극우단체 소속원들이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하는 해외 견학 행사에도 참여한 사실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이 정도면 국민의 혈세를 이용하여 윤석열 정권이 이들을 관리하였다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을 것이고 수사기관은 이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를 유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소중한 자녀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시키고 댓글부대

까지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여 내란으로 치러지는 조기대선에 선거부정까지 도모했던 리박스쿨에는 윤석열 정권에 이어 김문수 캠프까지 깊숙히 개입되어 있다는 음습한 악취가 납니다

리박스쿨은 설립초기 지난 20대 대선 때 윤석열캠프에서 시민사회본부장으로 맹활약했던 전직 여론관리 전문가인 알파팀장 이모씨가 제공한 종로구 인사동 J빌딩에 있었고 이후 현재의 자리로 옮겼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모씨는 이번 김문수후보의 캠프에서도 일을 했다 하는데 김문수 후보는 내일 선거전에 이모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내란과 전광훈 찬양에 있어서만 윤석열의 아바타인 줄 알았는데 저희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번에 보니 어린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시키고 댓글을 조작하는 극우단체를 사랑하는 부분까지 윤석열의 아바타였습니다

댓글작업을 하는 또 다른 장소의 운영에도 이모씨가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으며 이런 이모씨의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이 반드시 수사 할 것을 촉구합니다.

장동혁 선대위 상황실장에게도 다시 묻습니다. 선대위 공식입장을 밝히면서 “댓글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사실이다” 라고 하며 리박스쿨의 조직적인 댓글작업 행태의 선거부정에 대해 우호적인 변명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자격증을 미끼로 동원된 자손군에 의한 조직적 댓글작업도 표현의 자유 영역인지 아니면 경제적 이익제공이라는 미끼를 이용하여 표현의 자유를 강요한 것인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촉구합니다.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부정을 획책한 사건입니다. 조직적 댓글 작업으로 여론을 조작하여 낙선목적으로 타 후보를 비방한 리박스쿨에서 꼬리를 자르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그 배후세력과 자금원천까지 수사하여 다시는 국민의 참정권이 도둑질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저희 민주당에서는 대선의 종료와 상관없이 어린자녀들의 역사관을 왜곡시키는 이 부정에 대해 이번에는 잔뿌리까지 뽑아내어 다시는 이러한 잡초가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기생하지 못하도록 발본색원 할 것입니다.

저희를 믿고 이번 부정을 발본색원하여 바로 잡는 것이 대한민국이 한 걸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2025년 6월 2일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
단장 강득구, 부단장 정준호·박관천